더불어민주당	보 도 자 료	2021. 12. 31. (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 담당 : 윤석민(010-7151-6228), 변아영(010-6371-1695)		

<디지털·혁신 대전환위> 박영선 위원장,
- SNS 포스팅 NFT로 발행해 거래소에 등록하는 실험 선보여 -

○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소확행 공약 1호와 발맞춰 가상자산의 비즈니스 활용 방안 선보여
○ 박영선 위원장의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을 NFT로 만들어서 등록
○ 박영선,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가상자산,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SNS 포스팅을 이미지화해서 NFT로 발행한 뒤 이를 글로벌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 등록하는 실험을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차고 소중한 민생과제를 발표하고 있고, 소확행 공약 1호로 발표한 것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건전한 육성이다.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소확행 공약 1호와 발맞춰 본인이 2018년 1월 11일 작성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을 NFT로 만들어서 실제 NFT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인 오픈씨에 해당 NFT를 30일에 등록하였다.

박영선 위원장은 "2018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먼저 밝혔다.

박 위원장은 “블록체인, NFT 관련 기술들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디지털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험은 2030세대의 관심이 매우 높은 디지털 경제 분야의 일자리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 맞춤형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코드스테이츠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끝/

[첨부1] NFT 이미지
[첨부2] 오픈씨 링크
[첨부3] NFT 개념 설명

※ [첨부1] NFT 이미지

※ [첨부2] 오픈씨 링크

https://opensea.io/assets/klaytn/0x9faccd9f9661dddec3971c1ee146516127c34fc1/2371636755

※ [첨부3] NFT 개념 설명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인식 값을 부여해 고유한 디지털 존재로 만드는 것을 말함.